

42 ① A

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동방대학교	성명	한글	나자로바 다디나	생년월일	1995년 6월 9일
	영문	Taikent State Ins titute of Oriental		영문	Nazarova Madina		학년

제 생각에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
 라는 말이 더 강하고 힘을 주는 말로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 힘 내자', '우리는
 보자' 등 말을 자꾸 듣고 있는데, 하필
 왜 '나'가 아니라 우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말을 다시 '나'하고 바꾸
 어 보면 전혀 어딘 의의가 될까? 나 뿐입니다.
 나는 '물론 자신 있다'는 뜻을 표현하리
 만 왜 '저 혼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까.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사와 현
 대 생활, 가치관 등은 인생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사립입
 니다. 외모, 성격, 생활 습관 등도 당연
 히 다르지만 각각 사랑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항상 잘 살아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시간이지나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
 조배키스탄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
 람들이 우즈베키스탄 민족과 잘 어울려서 사
 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언어,

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동방대학교	성명	한글	나사르바 다다나	생년월일	1995년 6월 9일
	영문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영문	Nasrabbala dadana		
				학년	중앙생		

문화, 종교 등이 전혀 다르지만 우즈베허
기스탄 사람들이 그들하고 '우리'가 되
도록 서로의 민족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신기하고 놀랍던 것이 있는 데 그
것이 바로 삼팔선의 나누어짐니다. 한
국 각각의 작품을 읽으면서 한민족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
것은 저에게 깊은 감정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의 고난을 직접 느낀 사람들
이 그 때 '우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가족을 잃은 대나 친척을 버
린 때 '우리'라는 생 각을 했었을까? 문
화를 역사 지켜 보는 것이 쉽지 만 그
래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전쟁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나라'의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을 이별로 보
낸 한국 사람들이 운명은 '우리'라는
말 튀어서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
다.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알려진 나
의 시민들이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되기 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의
지도자 김정은하고 남한의 대통령은 세
인의 것 만 남이 한국 인뿐만 아니라 세

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학급	한글	동방대학교			성명	한글	나자르바 다다나			생년월일	1995년 6월 9일			
	영문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				영문	Nazarova Nadina				학년			
중앙성														

계 어 는 나 라 에 도 기 변 일 이 되 었 습 니
다 . 이 만 남 이 한 국 민 족 의 값 은 상 처
를 어 즉 만 길 누 있 었 습 니 다 . 두 나 라 가
통 일 을 이 루 고 하 나 가 될 누 있 으 면
우 주 에 사 는 모 두 에 게 '우 리' 라는 말 이
얼 마 나 중 요 하 고 조 종 한 지 보 여 줄
수 있 을 만 큼 큰 성공 이 될 니 다 . 그 리
고 서로 의 아 품 과 상처 를 잊 고 서로 를
응 원 하 여 약 70 년 간 의 속 상 함 을 '우 리 가
하 누 있 다 , '우 리 힘 ' 내 과 ' '우 리 해
보 자 ' 고 하 면 서 견 디 면 얼 마 나 많 은
사 랑 들 이 더 행 복 해 질 누 있 을 지
모 를 니 다 .
날 마 다 몇 번 씩 사 는 '우 리' 라는 단 어
가 그 만 큼 중 요 하 고 소 중 한 지 모 르
사 랑 들 이 앞 으 면 인 생 이 더 무 행 복 하
고 재 미 있 어 질 누 있 겠 습 니 다 . '우 리' 는
세 상 에 서 모 든 사 랑 들 에 게 가 치 있 고
보 물 같 은 것 이 며 서 로 를 돌 보 로 하 는
것 을 는 것 누 있 게 도 와 줍 니 다 . 여 러
분 도 오 늘 부터 '내' 가 아 니 라 '우 리' 라
고 해 보 면 어 떻 까 ? '우 리' 로 되 어
보 면 어 떻 까 ? 이 단 어 를 쓰 기 시 작 하
면 그 의 기 적 같 은 힘 이 호 과 를 보 여
줄 거 라 고 믿 습 니 다 .